



## 광장

### 고려 병원 편

서소문. 문화방송국 건너편 우측숱은 9층 건물은 새로 지은 관계도 있었으나 병원다운 깨끗함으로 한낮의 햇볕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건물 서쪽에 자리잡은 2층의 간호과를 찾았을 때 간호계의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간호과장 이송희 선생님이 반가회 맞아 주셨다.

간단히 이번호부터 “우리들의 광장”을 마련한 취지부터 말씀 드렸더니 더 큰 병원을 다 놔두고 왜 우리병원 부터 찾아주었느냐고 싫지 않은 투정을 하셨다.

1968년 11월 2일에 현재 원장님이신 조운해 박사님을 모시고 설립된 고려병원은 124개의 입원실과 200Bed를 소유하고 있으며 89명의 간호원과 29명의 전문의와 인턴 11, 수련의 36명이 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신신경과, 피부비뇨과, 암과가 초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간호과장님의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하는 가자의 질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니 실리라”는 결손의 말씀 뒤에는 이송희 선생님하면 간호계의 사람이면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질책 같기도 하여 형식상 가자의 입의로 약력을 간단히 소개하면 1947년 서울대학 간호학교를 졸업하시고 1956년 미네소다대학 대학원에서 간호교육 및 간호행정학을 연구하시고 1957년부터 서울대학 부속 병원에 근무하시다가 우석대학에 간호학과가 생기며 동교에 교수로 계시다 현재 병원장이신 조운해 박사님의 개원 초부터의 간곡한 요청으로 1971년 ( )월부터 부임해 오셨다.

간호원의 보수문제는 어땠습니까? 하는 질문

에 타 사립병원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었고 업무량도 무리한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은 전국적으로 간호원의 T.O.가 모자라는 형편에 비해 무난하다는 것일게다.

이 병원의 특수한 것은 동위원소실이 있다는 것, 병원의 motto는 환자 제일주의로 치료가 신속하고 환자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주기로 하고 있어 고려병원의 환자는 낙원이더라는 온근한 자랑을 하셨다.

세칭 고려병원하면 비싼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에 불품공급과 약이 좋으니가 그렇다고 일축해 버리시며 시중 사립병원에 비해 그닥 비싼원이 아니라 하는 것은 환자 자신들이 증명하고 나가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간호원을 위한 오락시설은 아직 대단한 것이 못되고 기숙사에 아담하게 전축 테레비가 있어 바쁜틈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락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런 기회에 병원당국에 바라고 싶은 일은 없는가는 질문에, 기숙사가 대체로 한방에 4명씩 있으므로 항상 번이 교체되기 때문에 밤번을 하고온 간호원이 소란스러워 충분히 휴식할 수 없으므로 따로이 밤번이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아직은 체계가 잡히지 않아 작업분화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병원 당국에서도 절실히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차차 시정

되어 나갈것이라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협회에 대한 건의로는 우리 회원들의 집인 협회가 회원들의 방문시 좀 더 친절하게 임하여 주셨으면, 또한 간호원 자신들의 교양을 위한 코너를 간호지에 만들어 우리가 항상 알고 있으나 배만하여 질때 그때 그때 자극이 되어 좀 더 친절한 행동과 아름다운 말씨를 쓰도록 하여 언제나 지성있는 간호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특별히 전문적인 직업인이기 때문에 내 할 일만 충실히 하면된다는 개념으로 상사에 대한 예의가 소홀하다. 이런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나가면, 밝고 명랑한 직장 나아가서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는 간호 행정 책임자가 간호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원의 문제를 결정지을때 탁상공론에 의한 결정이 되어지는데 간호원의 문제는 간호원이 해야만, 절실하고 적절한 처리가 되지않을까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이었다.

대체로 격조높은 병원으로서 시설과 기타 전반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으며 옛날 김구 선생님이 사시던 경거장을 옛모습 그대로 현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색적이였다.

1971년 9월 27일

참석자 : 이송희 간호과장님  
주옥희(간호과장실 근무)  
문정혜(대한간호협회 출판부)